



전주비전대, 원광보건대와 협약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는 지난 27일 글로벌간호 시뮬레이션실에서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와 시뮬레이션 실습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비전대 김재현 학부장, 유승희 학과장 오미숙 교수, 박승미 교수와 원광보건대에서 박금숙 학부장 전은영 교수 이명인 교수가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 및 교재개발 공동 참여 ▲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 ▲시뮬레이션 등 실습기재 및 시설 공동 사용 ▲현장실습 경험 공유 등이 다.

전주비전대 김재현 학부장은 원광보건대와의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의 현장비전형의 시뮬레이션 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간호학 지식과 실무 능력이 겸비된 맞춤형 간호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비전대 간호학부는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을 비롯해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등에 취업하고 있고 매년 87%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오수면 행복보장협의체, 밀반찬 지원 사업 펼쳐

오수면 행복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세근)가 밀반찬 지원사업을 통하여 밀내 거동이 불편한 사회취약계층의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오수면 행복보장협의체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후원금을 전달받아 면내 12가정에 주 1회 건강식 밀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지정기탁금은 면내 저소득가정을 위해 출생인사, 주민 등 전국 가지 오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탁한 소중한 밀알이다.

이에 협의체는 기탁인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레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요양보호 등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초에 협의체 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의체에서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사업, 재택중증환자 꽃구기 사업 등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협의체는 오수면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사이언트 예술단, 다리로움 밥차에 성금 100만원

사이언트 예술단(대표 정각수)이 지난 27일 문화관광산업과를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달라미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다리로움 밥차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이언트 예술단의 정각수 대표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매 분기마다 성금 기부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더불어 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문화활동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형중 문화관광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사이언트 예술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언트 예술단은 2017년 단체가 설립된 이후로 장애인을 위한 음악지도 및 공연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왔다.

/익산=이재춘 기자

무병장수와 건강한 노후생활 기원

전북농협·삼례농협, 찾아가는 농촌복지서비스 농업인행복버스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송혁), 삼례농협(조합장 강신화)은 지난 27일 삼례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인행복버스를 진행했다.

이날 실시한 '농업인 행복버스'는 농업인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 촬영과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한방의료진료, 일상생활 편의도모를 위한 검안 및 돋보기 무상 제공으로 참여한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촌 고령층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 농업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 활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 행복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실업사업으로 복지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장수사진 촬영, 검안 및 돋보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 개관 박차

남원시는 최근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를 통해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방법으로 거주자의 꿈 사회참여 동조함을 선정하고, 동부권 어르신들에게 내실 있는 노인 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는 수탁을 신청한 3개 기관에 대해 법인의 적격성 및 사업능력,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에 대한 사전 서면심의와 대면심(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남원시는 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위탁법인 선정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3차례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진행한 바 있으며, 매 심의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 전변교체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한 바 있다.

한편,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은 총 사업비 90억원이 투입된 지하층, 지상4층 규모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5월 말 준공



해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반·전문 상담 및 정보제공 위키 및 취약노인 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 및 지원, 건강생활지원,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지역자재개발 및 지역지역연계,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 사업 등을 통해 동부권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농업인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사업 추진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문구)와 고창군 관내 5개 지역 농협은 농촌사랑 현장봉사단 발대식과 함께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콜센터 복지서비스 등록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웃사랑 실천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실시된 본 사업은 지역농협에서 선정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7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농협중앙회 현 장봉사단,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 관내 5개 지역농협의 공동후원으로 고창군 농가주부모임연합회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노후주택 샹시, 보일러 도배, 장판 교체 등 수요자가 희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행사를 마무리한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이문구 지부장은 "앞으로도 농협은 지역의 고령화현상과 소외된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내 지역 농협과 함께 농업인 행복



콜센터와 현장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성 기자



여양동 최대광사, 저소득가구에 성금 100만원 기탁

익산시 여양동에 거주하는 최대광(33)씨가 27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최대광씨가 기탁한 뜻처럼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최대광씨는 "코로나19로 주변 지인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금을 기부하고 싶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순 복지국장은 "지역사회에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계시는 힘든 이 시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했다. 한편 최대광씨는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남원의료원, '이달의 으뜸도정상' 수상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의 위상을 빛낸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라북도가 선정하는 '이달의 으뜸도정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에서 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경제문화 선도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22년도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평가에 응모,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및 7개 공설(공공)장례식장 중 최초로 최우수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한 성과 등이 인정받았다.

박주영 원장은 "일시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시설과 환경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농협, 직원 20여명 고추농가 일손돕기 나서

진안농협(조합장 허남규) 직원 20여명은 지난 28일 진안군 연정리에 있는 고추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고추밭에서 고추지주대 설치 및 고추군 튀기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농가는 갑작스러운 일손돕기 요청에도 농협이 흔쾌히 응해주어서 덕분에 한시름 덜었으며, 바쁜 업무에도 농민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일손돕기에 함께 한 허남규 조합장은 "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실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임실군과 한국환경공단이 군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상수도사업 관계인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지난 28일 실시했다.

마을별 주요 도로와 마을안길을 전체적으로 굴착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현황회의 박대성 지회장을 초빙하여 상수도과장, 공사관리감독자, 공사관계자와 더불어 군의 상수도사업 긴급공사를 전담하는 대행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치매 이통상담실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에서는 치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치매 상담과 조기검진 등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치매 이통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장소는 시장, 농협, 약국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16개소로, 해당 장소마다 3~4회씩 방문 운영하고 있으며, 버디 많은 시민들의 제공을 위해 올해에는 남원백제약국 등 3개소를 추가했다.

이동상담실에서는 치매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와 2차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 등 시스템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